

전남도, 싱가포르 농수산물 수출 물꼬 텃다

현지 유통·판매 전문기업과 협약 연 300만 달러 판로 교두보 확보 국제식품박람회서 '전남관' 운영

전남도가 싱가포르에 연간 300만 달러 규모의 농수산물 수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22일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전남 현지 한국식품 유통·판매 전문기업인 LNC 이종근 대표와 '전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NC는 전남산 우수 농수산물 수출을 싱가포르 현지에서 적극 홍보하고,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싱가포르 수출 확대를 이끌게 된다. LNC는 이 대표가 지난 2009년 싱가포르에 설립했으며 현지 식당 200여곳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또 한국식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오케이식품'을 비롯해 'LEE마트', 한국식 반찬 전문점 '찬찬찬'과 한국형 분식집 '원더풀 밥상'을 운영중이며, 연 매출 1억5,000만달러를 달성하는 한국산 식품 전문 수입·유통기업이다.

이 대표는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가 혼재한 다민족 국가이면서, 전체 인구의 약 30%가 외국인으로 외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매우 높다"며 "전남도와 적극적인 협업은 물론 LNC가 가지고 있는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전남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부지사는 "LNC가 가지고 있는 식품 유통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우수한 전남 농수산물품이 현지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음식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싱가포르에서 LNC와 함께 남도음식 세계화를 위한 교두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내달 25-28일 4일간 싱가포르 엑스포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식품박람회'에 전남을 대표하는 김·감자·유자·천일염·녹차·장류·한식육수·오징어스낵 등을 생산하는 8개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전라남도 식품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수출 브랜드인 '더 키친 오브 코리아, 전라남도(The Kitchen of Korea, Jeollanamdo)' 통합부스를 설치해 전남 수출 기업의 전시·상담 공간을 운영하고, 한국 음식의 정수인 '남도음식'을 홍보해 세계 식품시장에서 전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임재민 기자

시의회, 추경 1,216억 증액

광주시의회는 22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광주시의 올해 총예산은 7조2,318억원으로 본 예산 7조1,102억원보다 1,216억원(1.7%) 늘어났다. 광주시는 애초 가뭄 극복과 민생 안정, 창업, 산업, 근로 복지를 위해 1천216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대부분 반영됐다. 경로식당 조리인력 지원예산 1억5,800만원이 증액돼 5개 자치구 18개 복지관의 경로식당에 예산이 지원된다. 상암위에서 전역 삭감됐던 아시아 캐릭터랜드 조성사업 용역비 7억원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재반영됐다. 광주 상생카드 발행 지원 106억원, 창업 기업 제품 실증 30억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70억원, 창업페스티벌 15억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자금 42억원, 지역 유니콘 육성 10억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청사 시민 편의 공간 조성 1억4,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3억원, 뷰티 기술 영상콘텐츠개발 1억5,000만원은 삭감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함께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광주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조례안 4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건의안 1건 등 총 5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길용현 기자

광주의 관문 '송정역' 확 바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7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주차빌딩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될 주차빌딩은 지상 6층 규모로 차량 1,570대의 동시 주차가 가능하다. 기존 지상 주차장은 400여대 수용에 그쳐 만성 주차난과 동시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송정역 주변에 대규모 주택과 산업시설이 들어서면서 KTX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사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5,943억원을 투입해 송정역 전면 3만1,778㎡(1만평)에는 원도심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공공 안심상가·오피스·뉴스퀘어·주차빌딩·환승동로 등이 들어선다. 후면 52만8,649㎡(16만평)에는 공동주택, 상업·연구·문화 시설 등이 포함된 자도차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중으로 개발계획 변경,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이처럼 송정역 인프라 개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인 가운데 이용객 편의 향상의 마지막 퍼즐인 복합환승센터 건설의 돌파구가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복합환승센터는 2013년부터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 답보상태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공장부지 용도 변경을 놓고 공방이전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금호타이어 이전이 마무리되면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국가계획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배상영 시 광역교통과장은 "송정역은 광주의 관문을 넘어 호남의 관문으로 변모했지만 위상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시설로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중인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남구의회는 22일 의정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박용화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회계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박호정 세무사와 김중명 회계사 등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남구의회 제공

광주시, AI·모빌리티 투자유치 수도권 공략

7기 경제투자자문단 출범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등 민선 8기 주력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투자유치에 나섰다. 22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에서 '제7기 수도권 경제투자자문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류경선 ㈜아주디자인그룹 회장, 박주형 신세계 센트럴시티 대표, 배해동 토니모리 회장, 한진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 신경렬 TY홀딩스 미디어담당 사장, 배용주 경찰공제회 이사장 등 15명의 자문

위원이 참석했다. 경제투자자문단은 경제계와 법조계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출향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간이다.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상시적인 경제동향 파악, 투자 의향 기업과 타깃 기업 정보수집 등 활동을 한다. 광주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전략 수립과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선 ㈜아주디자인그룹 회장은 "광주시가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량과 능력을 갖춘 자문위원들과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며 "광주에 애정이 큰 만큼 지역 발전을 위

해 자문위원단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고향인 광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애정을 쏟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인공지능과 자동차를 양 날개 삼아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고자 한다. 산업을 키워 도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 등 기본 소식도 연이어 들리는 만큼 광주의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핵심 산업의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공모 전남도, 오는 5월 12일까지

전남도는 2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기부자가 공감하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로 전남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도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도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다. 공모 제안서는 전남도청 고향사랑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7월께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공모에 선정된 제언자에게 은누리 상품권을 시상품으로 지급한다. 오중우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소중한 기부금이 도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임재민 기자

담양군 공고 제2023-407호
담양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안) 주민열람 공고
「수도법」 제17조, 제46조에 의한 수도사업(변경)인가 신청한 월산면 신계리 일원의 담양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3.
담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신계정수장 이전 증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나. 위치 : 담양군 월산면 신계리 25번지 일원
다. 계획규모 : 사업면적 16,887㎡
2. 담양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안) 조서 및 도면 : 다음
3. 관계도서 : 계획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장소 :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및 도시과
5. 공람기간 : 2023. 03. 23. ~ 2023. 04. 07. (15일간)
6. 주민의견 제출방법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양군청 물순환사업소 또는 도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양군청 물순환사업소(☎061-380-3331), 도시과(☎061-380-310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람공고(안)는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임·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표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N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a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매성 302-0316-649511

그린공 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공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1% 당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